

하동군의회의원선거 하동군 다선거구
진교면, 금남면, 금성면
책자형선거공보

더불어
민주당

끝까지
듣던사람
이제는 바꾸러
나왔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권익위원
후보

1오영숙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하동군의회의원선거 (하동군다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민주당	오영숙	여	1963.02.03. (63세)	요양보호사	행정전문학사 (사회복지전공)	(전)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 경남지부 서부지회장 (현) 한사랑요양원 요양보호사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96,237	89,833	6,404	부:고지거부 모:고지거부	장남:고지거부 차남:고지거부 손녀1:고지거부 손녀2:고지거부	병역의무 없음	육군 일병 복무 완료 (소집해제)	-장남:육군 병장(만기) -차남:육군 이병(복무만료)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6,616	0	0	-해당없음
후보자	35	0	0	
배우자	728	0	0	
직계존속	0	0	0	
		부:신고거부, 모:신고거부		
직계비속	5,853			

4. 소명서

가장약한 사람곁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 오영숙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동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불균형을 바로잡겠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억울함과 차별이 없는
하동을 만들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기회가 있고,
누구나 존중받으며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동.
그런 하동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하동
군의원
후보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동
권의원
후보

1

듣는 일로 살아왔습니다

강원도에서 태어나 교사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상도로 내려와 가정을 꾸리고, 평생을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어머니로, 그리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가정을 꾸렸고, 어려운 이웃들이 찾아오는 자리에서 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시절, 현장의 어려움은 더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쉬지 못하는 노동, 부족한 인력,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개인이 버틸 문제가 아니라, 바뀌어야 할 문제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정책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왜, 오영숙 이어야 합니까

오영숙 후보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한 가지를 공통으로 말합니다.

“늘 남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사람이다.”

힘든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는 늘 오영숙 후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끝까지 들어주고, 필요하면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고 직접 교섭에 나섰습니다.

그 선택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은 필요할 때 움직이는 사람이다.”

조용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온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동
군의원후보

1

현장을 아는 사람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1. '하동 해양 관광지 지정' 사업을 통해 양포-술상-중평-노량항을 해양관광벨트의 거점으로 만들어 진교·금남·금성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2. '햇빛소득마을'을 조성 하여 발전 수익 군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제공 하겠습니다
3. 하동 전군민 월 15만원
농어촌기본소득 추가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 갈사만과 대송산단을 신재생에너지 기지로 전환 하겠습니다.
- 연간 하동군에 200억을 '햇빛연금'으로 제공 -
5. 진교공설시장 특레조례를 제정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 하겠습니다.
6. 돌봄종사자 복지 수당을 확대하고 대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겠습니다.
7. 지역민의 민원을 경청하고 빠르게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군의회원이 되겠습니다

진교면, 금남면, 금성면.

이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겠습니다.

큰 사업보다 먼저,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 쉽게 꺼내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끝까지 들겠습니다.

그리고 해결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조용히 살아온 시간이,
이제는 하동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하동의 변화를 오영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영숙이 걸어온 길

- 홍천여자고등학교 졸업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행정전문학사(사회복지전공)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2급
- 전) 돌봄서비스 노조 한사랑요양원 분회장
- 전) 돌봄서비스 노조 서부경남 지회장
- 전) 삼성생명 FC
- 전) 웨미리레스토랑 비버스 운영
- 전) 서석초등학교 교사
- 전) 국사편찬위원회 근무
- 전) 진주 동명중학교 운영위원
-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
- 현)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상무위원

진교면, 금남면, 금성면

하동
군의원
후보

1 오영숙